

월간 실적보고

2018.11

Summary of 2018 Nov

1.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1.7% YoY**

-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입장권, Pass 등)을 합산한 수치

2.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5% YoY**

- 패키지 **-2.4%** / 티켓 **-0.1% YOY**

(13.6만명 / 9.3만명)

3.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YoY)

- 중국 **+38.8%** 유럽 **+19.6%** 동남아 **+0.7%**

- 미주 **-29.9%** 남태 **-31.4%** 일본 **-32.2%**

4. 예약률 (YoY)

- 18년 12월 **-10.2%** / 19년 1월 **-19.4%** 2월 **+29.6%**

11월 Review : 해외여행상품 (패키지+티켓+단품) YoY -1.7%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YoY -1.5%, 송객인원 22.8만명

패키지 인원 YoY -2.4%, 13.6만명. 근거리 인기 지역인 일본의 자연재해(태풍 및 지진)로 인한 여행수요 둔화, 작년 11월은 연 중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22.4%)을 기록해 기저(High Base) 부담.

티켓 인원 YoY -0.1%, 9.3만명. 최근 5개월 간 매월 YOY 성장률 점차 개선

(7월 -13.0% → 8월 -6.0% → 9월 -2.7% → 10월 -1.8% → 11월 -0.1%)

11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8	135,536	92,720	228,256
2017	138,867	92,831	231,698
YOY	-2.4	-0.1	-1.5

패키지 YoY : 2018년 9월 -2.9% → 2018년 10월 +9.7% → 2018년 11월 -2.4%

티켓 YoY : 2018년 9월 -2.7% → 2018년 10월 -1.8% → 2018년 11월 -0.1%

총송객 YoY : 2018년 9월 -2.8% → 2018년 10월 +4.7% → 2018년 11월 -1.5%

지역별 성장 (YoY)

중국 +38.8% 유럽 +19.6% 동남아 +0.7% 미주 -29.9% 남태 -31.4% 일본 -32.2%

중국 +38.8%, 최근 8개월간 평균 성장률 45.9%. 높은 성장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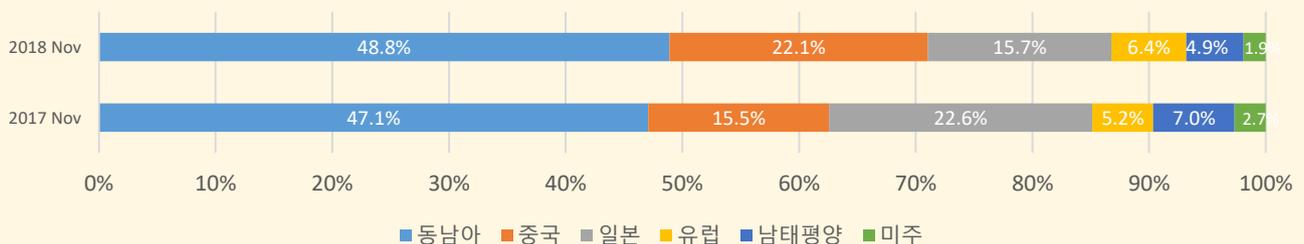
유럽 +19.6%, 지난 4개월 동안 성장 지속.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장성.

동남아 +0.7%, 작년 동월 성장률 기저(+42.8%) 부담. 최근 2개월간 성장하며 자연재해로부터 회복 기조.

남태 -31.4%, 사이판 태풍 영향으로 큰 폭 역성장.

일본 -32.2%, 6월 말 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로 여행수요 둔화.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

	18년 12월	19년 1월	19년 2월
예약률	-10.2	-19.4	+29.6

* 2018.11.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YoY)

2018년 12월. 직전월 발표한 예약률 대비 변화 미비. 올해 자연재해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일본지역의 여행수요 회복 지연.

2019년 1월. 2018년 12월과 마찬가지로 직전월 발표한 예약률 대비 변화 미비. 작년 동일시점 발표한 예약율은 +39%로 높은 기저가 부담이지만, 일본과 동남아 지역이 각광받는 시기인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위축되었던 여행 수요가 회복 된다면 예약률 개선 기대.

2019년 2월. 2018년 10월 이후 첫 두자리 수 예약률로 시작.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로 비교적 낮은 기저(Low Base)가 형성되며 성장 기대.

지속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상황에 따른 소비심리위축은 시장 전반적인 수요 둔화를 야기. 하지만 7월을 저점으로 소폭 개선되는 중. 과거 사례로 볼 때 크게 위축되었던 수요는 회복기에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임. 여전히 겨울 시즌 인기지역 위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며 향후 예약률 개선 가능 할 것으로 전망.